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1 03 제145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천주교마산교구사목국



소공동체 모임 순서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소공동체 모임 시작 전에 매월 2째주 혹은 3째 주일의 복음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이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 진행 | : 성호경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 인사 나누기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 진행 |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 진행 |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 진행 | : 길잡이에서()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1] 주님초대하기

[2] 하느님 말씀

- 1) 복음말씀을 읽는다.
-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5] 말씀 살기

-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6] 마침기도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진행 |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 진행 |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 진행 |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 진행 |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 진행 |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9. 마침성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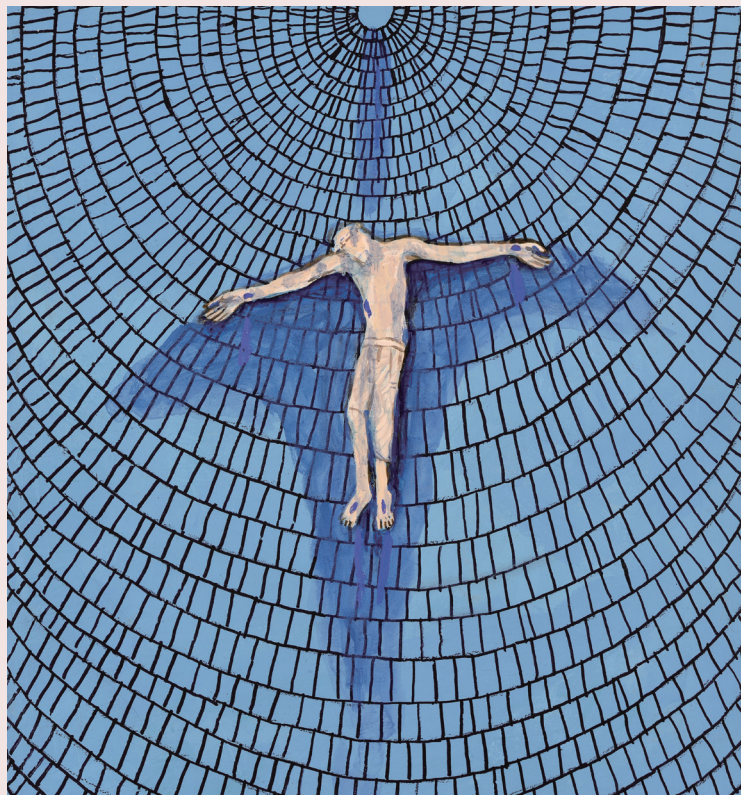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 진행 |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사순 제4주일 (3월 14일)

진리를 실천하는 이 (요한 3,14-21)



진리를 향한 자유 그림 / 정미연 소화데레사

사람의 아들은 높이 들어 올려져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삶의 순간마다 빛을 따를 것인지 어둠을 따를 것인지 결정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진리를 따름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23번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1절을 노래 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피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요한 복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15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16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17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18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



이다. 19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20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21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바깥 외판곳에 머무르셨다. 그래도 사람들은 사방에서 그분께 모여들었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3,15)

믿는다는 것에 대해 회의를 느껴 본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요한 3,21 ㄱ)

생활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을 통해 진리를 증언한 경험이 있습니까?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부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지배’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구원’에다가 다른 말을 가져다 넣어 보면 좀 더 선명하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살아서 이제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개인소득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돈에 목말라 합니다. 그리고 그 갈증이 채워지지 않아서 자신은 무능력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분노하고 하느님께 원망합니다.

‘지배’는 우리 일상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일상 가까이에서 이웃이나 가족 사이에서 자신의 영향력으로 지배하려 하고 서로의 관계를 깨트리기도 합니다.

부와 권력은 세상에 봉사하는 것으로 쓰일 때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것으로 쓰일 때 파멸의 길로 이르게 합니다. 부와 권력이 악을 저지르는데 쓰이지 않고 진리를 실천하는데 쓰여서 이 사순시기를 통해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뒤를 따라 구원으로 한걸음 더 나아갑시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23번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사순 제5주일 (3월 21일)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찾다 (요한 12,20-33)



불멸의 밀알 그림 / 정미연 소화데레사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 12,24) 한 알의 씨앗이 썩어 맺은 열매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믿음을 통해 세상을 이겨낸 아름다운 그 순간, 불멸을 상징하는 공작새가 이를 지켜봅니다.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순 시기에 우리도 기꺼이 밀알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419번 “밀알 하나가”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20 축제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21 그들은 갈릴래아의 벳사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다가 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22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2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25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26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

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27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28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29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30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31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32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일 것이다.” 33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요한 12, 21ㄴ)

언제 예수님을 뵙고 싶어집니까?

†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요한 12, 26ㄱ)

예수님을 따르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요한 12, 30)

주님의 소리를 어떻게 식별하십니까?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현대 사회에서 자신을 죽이며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처럼 보여집니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자기 과시를 할 줄 아는 사람의 정신건강이 오히려 더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TV 광고에서는 젊음을 유지하는 온갖 매력적인 물건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실지로 현대인들은 옛날보다 훨씬 젊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인간이 풍요를 누리는 만큼 자연은 신음하고 병들어 갑니다.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생활 쓰레기와 엄청나게 사용되고 버려지는 생활 폐수들..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니 참 좋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이기적인 인간들이 버린 쓰레기와 환경 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잊고 흙을 지배하는 존재처럼 살아 가려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게 세상의 가치만을 좇아 살아간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밀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고, 우리를 그러한 사도직

으로 불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 놓으시며 우리 인간이 죄의 허물에서 벗어나 하느님 모상으로서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도록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모상을 회복한 인간은 자기 과시에 빠져 살아가지 않고 세상 속에서 피조물의 일원으로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419번 “밀알 하나가”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친교 안에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는 공동체

남지본당 1-6반 반장 박선애 카타리나

창녕군 남지읍에 자리한 남지본당은 1954년 남지공소로 시작하여 1977년 본당으로 승격되었습니다. 2000년부터는 남지, 부곡, 영산성당이 함께 하는 남지선교본당으로 지내오다 얼마 전인 2015년 다시 남지본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선교종이라는 이름을 가진 오래된 종(鐘)이 남지의 오랜 역사를 말해줍니다. 지난 해에는 저희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항상 격려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박영진(베드로) 신부님의 은경축 행사를 코로나19로 인해 조용히 치렀습니다.

저희 반은 2개 구역 8개 반 중 외곽지역에 위치해 고 대부분 도시에서 이사를 온 가정이 많습니다. 12가정의 40대에서 70대 사이의 중장년층이 참여하고 있고 각 가정에서의 모임은 물론 하느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자연을 벗삼아 친목 도모로 야외 모임도 종종 가집니다.

저희 반에는 깊은 신앙심으로 본당 내 여러 봉사직을 두루 맡으신 전 본당 회장 김희재 디베리오 형제님 부부가 계십니다. 지금 연령회 회장을 맡고 계신 김하웅 사도요한 형제님은 밤낮으로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방문하십니다. 뿌레시디움 단장으로 독서도

열심히 하시는 박보애 자매님 부부는 부산에서 이사 오신 뒤 형제님도 세례받으시고 힘든일을 맡아 수고해 주십니다. 곳곳의 성지 안내를 맡으시고 본당 시설분과장 역임하신 이상훈 요셉 형제님 부부와 창녕군에 쌀을 기증하시고 본당에 물적 빨랑카를 많이 해주시는 김손순 아가다 자매님도 계십니다. 지난번 소공동체 모임 때 점심으로 돼지바베큐를 해주신 윤길자 아네스 자매님, 주일날 아침 일찍 오셔서 마당청소와 간식봉사를 도와 주시는 윤종태 베드로 형제님, 청소년 간식봉사 단체 브르짓다회장이신 임옥선 수산나 자매님 부부, 성당 소독을 도맡아서 하시는 총각 정영정 알베르토 형제님, 남지장에서 지친 심신을 잠시 내려놓고 오가시는 분들이 힘을 얻도록 기쁜 마음으로 버스킹을 하시는 차준모 아우구스티노 형제님 부부, 부엌에서 어려운 일을 늘 도와주시는 서애자 안나자매님도 저희 반원이십니다. 이렇듯 각자가 곳곳에서 열심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소공동체에서 사봉성지와 문산성당, 사적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렇듯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시니 기도가 절로 되고 자연으로부터 힘도 받아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소공동체는 화합이 잘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당에 봉사도 아낌없이 도와주는 분들로 모여 있고 어려운 분이 계시면 도와 드리기 위해 각 방면으로 애를 씁니다.



마스크 착용 이후 부터 얼굴 보기가 어려워지게 되어 카톡을 통해서 안부 확인하고 연락하고 지내며 소수의 인원이 모여 자연 속에서 커피도 마시고 간식도 먹고 산책 겸 운동도 합니다. 연말연시부터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은 모든 활동이 멈춰 있지만 하느님 말씀에 맞들이고 내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보고 싶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빨리 되돌아 가고 싶습니다. 평화가 모든 가정에 늘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복음 나누기란 무엇인가요?

† 영적 성장의 과정입니다.

복음 나누기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고, 반성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복음의 실천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구성원들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 영적으로 성장할 때 신앙이 심화되며 자신의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상의 복음화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 말씀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를 알아듣게 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해주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복음 나누기를 통해 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나눔으로써 예수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을 쪼개어 나누어 주셨듯이 우리도 말씀을 쪼개어 나누어야 합니다.

* 「소공동체 봉사자교육 1단계」(수원교구 복음화국 소공동체부)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임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